

매경춘추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만주에서 몽골~중앙아시아~우크라이나~남부 러시아를 거쳐 헝가리 대평원까지 8000 km에 걸쳐 광활한 유라시아 대초원 지대가 전개된다. 이 지역은 겨울에 춥고(~영하 40도) 여름에 더운 데다(~40도), 연간 강수량도 평균 350 mm에 불과해 경작이 불가능한 척박한 곳이다.

그러나 여기서 살아온 기마 유목민들은 용감하고 영리한 DNA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삶의 터전을 지켜왔다. 그들이 바로 흉노·선비·돌궐·몽골·여진 등 아시아기마민족이다. 기원전(BC) 8세

기께 본격 등장한 기마군단은 지난 2500년간 대초원을 누비면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섰다. 한민족의 고조선은 이들보다 훨씬 앞서 동부 대초원지역에 국가를 건설하고 동북아를 장악하는 대역사를 시작했다.

아시아 기마군단이 달렸던 길을 이제는 철마가 달리고 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그것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여 하바롭스크, 울란우데, 이르쿠츠크를 거쳐 모스크바까지 장장 9288km를 달려 대초원 북부를 연결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 소유가 된 만주횡단철도(TMR)는 두

만강 유역인 중국 투먼에서 창춘-하얼빈 등 만주 지역을 통과하여 러시아 치타에서 TSR와 연결된다. 몽골횡단철도(TMGR)는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베이징을 지나 톈진까지 연결된다. 중국횡단철도(TCR)는 린원항에서 란저우, 우루무치, 카자흐스탄을 지나 TSR와 연결된다.

한반도종단철도(TKR)는 각각 부산과 목포에서 서울로와 대륙 4개 철도망과 연결하려는 것이다. 이 길들은 과거 수천 년 전부터 한민족이 국가를 건설하고 활

고조선 횡단철도

동하던 무대다. 윤내현 교수의 고조선 영토 경계에 따르면, 대체로 한반도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울란우데까지 가는 TSR, 만주의 TMR, 그리고 몽골의 TMGR가 달리는 길이 고조선 영역이다.

한민족의 기마군단이 달렸던 길을 이제 철마가 달리고 있다. 이 철길이 남북한으로 연결되어 '철의 실크로드'가 한민족의 활동 무대가 될 날을 기다린다. 그동안 연해주·만주·몽골·바이칼·실크로드 등 대초원지역을 여행했지만 내년 봄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고조선 국경을 달리는 여행을 할 계획이다.